

殷商代의 疾病과 治療

淑明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梁東淑*

殷商代의 疾病과 治療

淑明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梁東淑

1899年在商代後期的王宮遺址安陽小屯發現了甲骨文。甲骨文是目前能根據的最可靠的古代資料。十五萬多片的甲骨文中有很多有關疾病的內容。根據甲骨文可考察疾病的原因、疾病的治療、疾病的種類。甲骨文的疾病卜辭中可以觀察到首、目、耳、舌、齒、骨等三十多種疾病。跟現代人的疾病種類相差不多。

疾病的治療者是醫官，官名叫小疾臣。再來巫也是實際上的醫官了，人病了巫通過巫術來治病。商代是中國五千年歷史上最迷信的時代，一切事情都向上帝或是祖先占卜，按占卜的結果來行動。生病的時候也是一樣，但是慢慢知道，占卜不是治病的好辦法，所以到商代後期疾病卜辭漸漸少了。在甲骨文疾病卜辭中的病人有商王、王妃、王子、王臣，其中大多數是有關商王的疾病的情況。治療方法首先有藥來治病；第二鍼來治療；第三艾灸來治療；第四按摩來治療，第五牙科中有拔齒治療；第六有接骨的治療。

由甲骨文中的疾病卜辭可看出商代的疾病種類，治療方法，可以說商代的醫學水平相唐高，這樣的能力能夠鞏固戰國時代的醫術，作了漢代能寫出“神農本草經”，“黃帝內經”等名著的基礎，同時將中國的中醫學的始源推到商代的确切的根據。

Key Words: 甲骨文, 疾病, 治療

一. 序論

1899年 商代(B.C.1300-B.C.1046)인들이 직접 기록했던 3천년 전의 甲骨文이 河南 安陽에서 발견되었다. 이 발견은 中國의 고대 역사를 다시 기록할 실증적 자료가 될 만큼 획기적인 일이었다. 孔子는 일찍이 殷禮에 대한 기록이 너무 적다고 한탄했었지만 우리는 갑골문을 통해 商代의 王室·祭禮·征伐·貢納·農業·氣象·婚禮·生育·疾病 등 商代 사회 전반에 걸친 상황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¹⁾

갑골문 질병에 대한 내용은 仰韶, 龍山文化에서 夏代를 거치는 동안 고대인들의 질병에 대한 경험과 극복이 응결된 醫術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기록은 시대적인 한계라는 불가피성은 있지만 지금까지의 어떠한 문헌자료보다 상세하고 풍부하며 신빙성이 높다. 16만 여 편에 달하는 갑골문의 내용을 근거로 商代의 醫學 수준을 보면 질병에 대한 깊은 인식에 도달하여 질병의 원인, 종류, 상황, 및 치료를 규명해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어 주고 있다. 나아가 질병의 원인이 다름에 기인하여 내과, 외과의 개념을 구분하는 지혜를 보였고 도합 30여 종에 달한 질병이나 병증을 간파해냈으며 각종의 방법으로 질병 치료를 시도했던 사실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물질

* 교신저자: 梁東淑, 淑明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科, 02) 710-9332, dongsook@sookmyung.ac.kr

1) 王宇信. 甲骨學一百年. 社會科學出版社. 2003. p. 100.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中醫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中醫의 始源이 되는 중국 의학의 商代篇을 조명하는 것은 가치 있는 작업이다. 3천 3백 년 전 商代인들이 자신들의 질병 상황을 직접 기록한 내용을 통한 고찰은 중국 의학발달사적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고는 甲骨文 중 疾病卜辭²⁾에 관한 줄고를 정리하여 질병과 치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二. 商代人的 疾病觀

1. ‘疾’字의 인식

상대는 중국의 역사상 가장 미신적인 시대로 상용은 통치상의 모든 결정을 점복을 통해 계시를 받아 행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商代人들은 점을 쳐 질병의 원인과 그 胥유 여부를 물었다. 商代人이 어떠한 疾病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진료하였는지 甲骨文을 통하여 그 辨린을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갑골문자가 그러하듯 질병을 나타내는 文字 역시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상황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 식은땀을 흘릴 것이고, 치유 불가능을 예감한 환자는 바닥에서 생활하는 성한 사람과 달리 특별한 침상을 만들어 격리시켰다. 또한 빈번했던 전쟁에서 활에 맞아 치명상을 입을 경우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갑골문에 질병을 나타내는 문자의 형체는 바로 그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림 1
갑골문1



그림 2 갑골문2

그림 1 갑골문1의 문자 疾¹⁾은 병자가 침상위에 누워 온 몸에 땀을 흘리고 있는 모양이다. 침상과 사람 그리고 땀이나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는 환자의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면서 형상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갑골문2의 문자 疾²⁾은 정면으로 서있는 사람의 겨드랑이에 화살이 박혀있는 모양으로 大와 矢를 합쳐진 字이다. 그러나 A에 비해 광범위하게 쓰이지는 않았다. 疾자는 이들 두 자형이 결합되어 이루어졌고 질병을 나타내게 되었다.³⁾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표현은 각기 다른 질병의 原因을 표명하고 있다. 전자는 보이지 않는 內的 요소로 발병하여 알지 못한 현상에서, 후자는 外的인 사고로 발생한 요인에 의해 겪게 된 상황을 造字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疾病은 모든 사람이 경원시하고 病이 나면 빨리 치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싫어하다’, ‘재빨리’라는 두 가지의 引伸義가 파생되었다.⁴⁾

2. 外傷의 含意

商代人은 무기와 짐승들에 의한 상처, 그리고 작업환경으로 인한 재해 등 外적 요인에 의하여 생긴 상처는 다른 疾病보다 原因이 명확하여 藥物에 의한 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天神이나 祖上神에게 치료방법이나 胥유를 기원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甲骨文中에서는 外傷의 치료에 관하여 占친 내용은 거의 없다. 그러나 商代 사람들이 이를 재앙으로 표현했던

2) 梁東淑. 甲骨文에 나타난 疾病의 重要卜辭考釋. 中語中文學 제19집. 1996.

梁東淑. 甲骨文中으로 본 商代 疾病. 中語中文學 제24집. 1999.

3) 葉玉森. 說契: “象一小人在大人腋下, 寓提携扶持之意, 乃仁之眞諦. 疾引申爲疾病, 字更引申爲急, 疾惡乃其本誼, 今作嫉.”

4) 李孝定. 甲骨文集釋. p. 2525. “字實象矢著人腋下之形, 其本義爲疾速, 引申爲疾病.”

문자 가운데 외상과 관계있는 자들을 찾을 수 있다.

1) 戔(戔) : 才를 소리로 하고 戈를 결합한 형성자로 兵器의 날에 傷害를 입은 것을 나타내는 자다. 일반적인 재앙의 의미로 썼고 ‘亡戔’ 즉 ‘재앙이 없을까요’는 占卜用語이다.

2) (兪 · 害) : 뱀(它)에게 발(止)을 물린 모양을 그린 자로 害로 발음 한다. 5) 뱀의 독은 순간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아주 무서운 존재다. 따라서 뱀에게 발을 물리는 모양으로 ‘재앙’을 나타냈고 ‘亡兪’ 즉 ‘재앙이 없을까요’는 卜辭중의 占卜用語다.

3) 尤(尤) : 손을 나타내는 又 에 가로획을 그은 모양인데 손가락에 傷害를 입었다는 뜻이다. 비록 대재앙은 아닐지라도 큰상처를 일종의 재앙으로 간주해 “亡尤”는 ‘재앙이 없을까요’라고 하는 占卜用語로 쓰인다.

상대사회에서 外傷에서 입은 상해를 재앙이라는 관용어를 나타낸 것은 당시 사회에서 질병이나 여러 요인으로 인한 상해는 견디기 힘든 재앙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三. 疾病의 종류

甲骨文에 나타난 商代의 질병 상황을 분석한 자료에는 최고 34種類⁶⁾으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어 당대에 이미 각종 질병이 만연하였음을 알 수 있다. 甲骨文을 근거로 볼 때 그들은 疾病을 매우 상세하게 分類했고, 병증이나 증세에 따라 달리 占을 치는 등 疾病에 대하여 발전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甲骨文中에서 疾病을 기록할 때 疾病을 나타내는 疾 자 뒤에 질병을 앓는 부위를 나타내는 문자를 첨가하였다. 가령 머리가 아플 때는 疾首, 허가 아플 때는 疾舌이라고 하였다. 甲骨卜辭와 위 자료중의 30 여가지의 질병을 분류해보면 대략 內科, 外科, 眼科, 齒

科, 耳鼻咽喉科, 產婦人科, 小兒科, 神經精神科, 整形外科 등 9개 분과로 구분된다.

1. 內科的 질병

내과적 질병으로는 疾口, 疾舌, 疾身, 疾天, 腹不安, 奶執, 禍風, 蠱, 疾蛔, 癘, 疾, 疾疫 등 16가지다.

1) 疾首 : 頭部에 생긴 증기, 상처를 비롯해 頭痛을 의미한다.⁷⁾

· 甲辰卜, 出貞 : 王疾首無延(『合』24956).

갑신일에 점을 쳤고 出이 물었습니다. 대왕께서 머리가 아프신데 계속되지는 않겠습니까?

2) 疾口 : 입술이나 입안이 현 口腔에서 발생하는 疾病을 말한다.

· 貞 : 疾口御于妣甲(『合』11460).

물었습니다. 대왕께서 입이 아픈데 甲할머니께 御祭를 지낼까요?

3) 疾舌 : 혀에 생긴 여러 증세를 가리킨다.

· 甲辰卜, 古貞 : 疾舌唯有害.(『合』13634正)

갑진일에 古가 물었습니다. 혀가 아픈데 재앙이 미칠까요?

4) 疾身 : 주로 몸통 부위에 나타나는 갖가지 疾病을 가리킨다

· 貞 : 王疾身唯妣己害.(『合』822正) 물었습니다 : 대왕께서 몸이 아픈데 己할머니께서 재앙을 내린 것일까요?

5) 腹不安 : 가벼운 腹痛을 말한다.

· 癸酉卜, 爭貞 : 王腹不安, 亡延.(『合』5373)

계유일에 점을 쳤고 爭이 물었습니다. 대왕께서 배가 편안하지 않은데, 오래가지는 않을까요?

6) 奶執 : 산모의 乳頭가 막혀서 젖이 나오지 않는 증세를 말한다.

· 貞 : 御婦印乃(奶)執.(『合』802)

婦印의 젖이 나오지 않는데 御祭를 지낼까요?

7) 禍風 : 바람이나 냉기로 인한 감기와 유사한 질병이다.

· 貞 : 婦好禍風有疾.(『合』709正)

5) 裘錫圭. 古文字論集 <釋 兪>, 1992, 中華書局. p. 11.

6) 溫少峰, 袁庭棟. 殷墟卜辭研究醫學. 四川省新書局. 1983.

7) 周禮·春官: 春時有疾首疾. 注 首疾, 頭痛也

婦好가 감기몸살을 심히 앓지 않을까요?

8) 蠱 : 음식물에 벌레가 있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 貞 : 王骨唯蠱. 王骨不唯蠱. (『合』 286)

문입니다 : 대왕의 뼈가 아픈 것은 벌레에 의한 것일까요.

9) 疾蛔 : 기생충으로 인해 생긴 疾病을 가리킨다.⁸⁾

· 疾唯回. (『京』 1647) 회충에 의한 병입니까.

10) 癘 : 학질에 속하는 질병이다.

· 乙丑卜, 殷貞 : 王護(癘), 不唯孽. (『七』 X六)

을축일에 점을 쳤고 殷이 묻습니다 : 대왕께서 癘疾에 걸렸는데 제앙은 없겠지요?

11) 尿疾 : 소변을 보는 형상이다. 尿道나 소변에 나타나는 증세로 간주된다.

· 貞 : 尿弗其禍凡有疾. (『合』 13887)

문입니다 : 소변에 이상이 있는데 큰 병이 되지 않을까요?

12) 疾疫 : 疫은 일종의 傳染病이다.

· 甲子卜, 殷貞 : 疾疫, 不延. (『合』 13658正)

갑자일에 점을 쳤고 殷이 물었습니다 : 돌립 병에 걸렸는데 오래가지 않을까요?

각가지 질병을 앓았고 치료를 위해 안간힘을 썼던 商人들은 疾病의 原因 중 하나로 어떠한 벌레가 몸속으로 들어와 일어난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이미 病理學의 개념이 싹트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外科의 질병

甲骨卜辭에서 外科의 질병은 疾足, 疾首, 疾止, 疾臀, 疾肘, 疾膝, 疾骨 등 모두 8 가지 種類로 나타나 있다.

1) 疾足 : 다리에 생기는 疾病을 말한다.

· 貞 : 疾足, 寵. (『合』 13693) 다리병이 신의 가호로 치유가 될까요?

2) 疾止 :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생기는 疾病을 말한다.

· 口午卜, 殷貞 : 疾趾唯黃尹害. (『合』 13682)

발이 아픈데 黃尹이 제앙을 내린 것일까요?

3) 疾臀 : 사람의 엉덩이 밑을 돌출시킨 모양으로, 臀部와 관계되는 疾病임을 알 수 있다.

· 口寅卜, 古貞 : 臀其有疾.

□인일에 점을 쳤고 古가 묻습니다 : 둔부에 病이 난 것일까요?

4) 疾肘 : 손의 끝 부분이 굽은 모양으로 팔꿈치를 상형한 것이다. 『說文』에서 “肘, 臂節也.”라 하였으므로 疾肘는 팔꿈치의 관절에 생긴 疾病으로 간주된다.

· 貞 : 疾肘……. (『合』 13676) 묻습니다 : 팔꿈치가 아픈데…….

5) 疾口 : 사람이 무릎을 대고 꿇어앉은 모양으로 무릎관절 부위 질환으로 보고 있다⁹⁾.

· 己酉卜, 貞 : 有疾口. (『簠』 38) 무릎질환이 있을까요?

6) 疾骨 : 甲骨文的 骨자는 관절이 붙어 있는 牛骨의 상형이다. 疾骨은 뼈의 통증을 말한다.

· 庚戌卜, 貞 : 王其疾骨. (『合』 709正)

경술일에 점을 쳤고 王이 묻습니다 : 대왕께서 뼈골에 질환이 있을까요?

3. 眼科 질병

甲骨卜辭에는 眼科 질병을 疾目이라고 했는데, 이는 눈에 생기는 여러가지 疾病을 말한다.

· 有疾目, 不延. 『合』 13620正) 눈병이 낫는데, 오래가지는 않겠지요?

그 외에도 「大目不喪明」, 「其喪明」 등의 기록으로 볼 때 실명을 초래할 심한 안질환도 있었던 것이다. 喪은 傷과 동음으로 같은 뜻이다.

8) 溫少峰 袁庭棟編著. 殷墟卜辭研究. 四川省新華書店. 1983. p. 326.

9) 溫少峰, 袁庭棟編著. 殷墟卜辭研究. 四川省新華書店. 1983. pp. 310-311.

4. 齒科 질병

齒科 질병은 疾齒인데 이가 썩거나 부러져 생기는 痛症을 말한다.

· 甲子卜：王疾齒，無易。(『合』13643) 왕의 이가 아픈데 뽑지 말까요?

· 有疾齒唯蠱。『合』13658正 이가 아픈데 벌레가 먹은 것일까요?

5. 耳鼻咽喉科 질병

甲骨卜辭의 耳鼻咽喉科 질병으로는 疾耳·疾自·疾言 등 세 가지로 나타난다.

· 疾耳：疾耳는 귀에 생기는 질병이다.

貞：疾耳唯有害。(『合』13630) 귀병이 있는데 재앙이 있을까요?

· 疾自：코에 생기는 疾病이다. 自는 鼻의 本字로 코를 가리킨다.

貞：有疾自，不唯有害。(『合』11506)

코가 아픈데 재앙이 있지 않을까요?

· 疾言(喉病)：疾言은 심한 병을 앓고 난 후에 생기는 후유증으로 사람의 咽喉에 질병이 생겨 언어장애가 있거나 뇌의 신경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失語症과 관계되는 질병이라고 추측된다.¹⁰⁾

丁巳卜：□有疾言，御。(『合』13638)

정사일에 점을 칩니다：……□에게 실어증 증세가 있는데 御祭를 지낼까요?

6. 婦人科 질병

婦人科는 妊娠·分娩 및 여성과 관련된 임상병과명이다. 甲骨文中에 나타나는 산부인과적 질병 및 관계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수태에 대한 내용

· 婦好母其有子，婦好有子。三月。(『合』13927)

婦好에게 아이가 없을까요? 婦好에게 아이가 있

을까요? 3월에.

2) 출산에 관한 내용：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산모나 아이에게 질병이 있겠는지를 묻는 물음이다. 育은 아이를 낳는 모양으로 毓의 본자이다.

· 乙丑卜，貞：婦爵育子，亡疾。(『合』22323)

을축일에 점을 치고, 묻습니다. 婦爵이 아이를 낳았는데 病이 없을까요?

아이를 낳는 일은 어느 시대에나 매우 신성시되었다. 卜辭에는 孕胎에 대해 占을 친 내용이 있고, 분만에정일을 점쳐 묻기도 하였다. 특히, 得男한 것을吉한 일로 기록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商代에 이미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3) 수유에 관한 내용

· 辛口卜，呼爰婦媯乳。(『合』22247) 婦媯의 젖을 보충하라고 할까요?

爰은 '보충하다', 乳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모양인 乳이다. 산모의 젖이 부족할 때도 보충여부를 물어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出產日을 알아보는 내용

· 辛未卜，殷貞：婦好媯，女力。王曰：其唯庚媯，女力。三月庚戌媯，女力。(『合』454正) 婦好在 分媯하는데 得男할까요? 대왕께서 占친 결과를 보고 “庚날일에 分媯하면 길하겠다.”고 하였다. 3월 庚戌일에 分媯하였는데 과연 得男했다.

· 甲申卜，殷貞：婦好媯，不其女力。三旬有一日，甲寅媯，允不女力。惟女。(『合』14002正) 婦好在 分媯하는데 得男하지 않을까요? 31일이 지난 甲寅일에 分媯하였는데 정말 得男 하지 못했다. 딸을 낳았다.

女力는 여인이 농구인 가뢰를 들고 있는 모양으로 嘉로 읽는다. 복사에서는 여인이 출산할 때 득남함을 뜻하고 딸을 낳으면 不女力라고 하였다. 이들 복사는 女力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당시에 팽배했던 남아선호 사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0) 濫少峰 袁庭棟編著. 殷墟卜辭研究. 四川省新華書店. 1983. p. 317.

5) 得男에 대한 내용

·辛丑卜, 爭貞: 小臣媯, 女力. (『合』 14037)
 小臣이 분만을 하는데 길(아들)할까요?

甲骨文의 媯字는 媯의 초문으로 임신부가 아이를 낳는 것을 두 손으로 받는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媯은 媯으로도 읽으므로 媯은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다. 어두운 곳에서 출산하므로 점차 ‘어둡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¹¹⁾

7. 小兒科 질병

甲骨卜辭 중의 子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작위·관명, 때로는 왕자들을 가리키며 자녀를 일컫기도 한다. 甲骨文중의 어린이의 질병은 子疾이라 하였다.

· 婦媯子疾不延. (『合』 22246)
 婦媯의 아이가 아픈데 오래가지 않을까요?

商代人들은 왕자가 성장하면 子漁·子央처럼 이름 앞에 子를 붙여 부르고 성장하기전의 어린 왕자는 본편처럼 어머니 이름인 媯나 媯 뒤에 子를 붙여 구별하였다. 고로 본 예문은 소아과에 예속 시켰다.¹²⁾

8. 神經科 질병

甲骨卜辭에서는 심리상태나 정신적인 질환에 속한 神經科의 질병으로 疾心, 疾旋, 鬼夢, 酒精(알콜)中毒症 등을 들 수 있다.

1) 疾心: 사람의 가슴에 있는 심장의 형태로 心자를 心으로 나타냈다. 心疾은 지나치게 마음을 쓰거나 괴로움을 당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신경쇠약 증세라고 할 수 있다.¹³⁾

· 貞: 有疾心, 唯有害. (『乙』 738)

가슴앓이가 있는데 재앙이 있을까요?

2) 疾旋: 旋은 ‘돌아간다’는 뜻이 있다. 疾旋은 眩氣症이나 神經系統의 질병을 말한다.¹⁴⁾

· 疾亡旋(『拾』 12, 17). 현기증이 더 이상 없을까요?

3) 鬼夢: 商代人들은 꿈에서 잡귀를 보거나 어떤 두려운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疾病이 생긴다고 여겼다. 甲骨文 夢자는 침상에 누워 자면서 손을 휘젓고 있는 모양 𠄎으로 卜辭에서는 惡夢을 나타낸다. 商王은 악몽을 꾸다 방노를 한 경우(『合』 17446)까지 있었는데 이는 꿈과 疾病과의 관계를 반증한다. 商代人이 鬼夢을 疾病의 한 종류로 認識한 예를 볼 수 있다.

· 貞: 王夢不惟…….(『合』 17408)
 대왕께서 악몽을 꾸었는데……하지 않을까요?

4) 酒精中毒症(알콜중독): 商代 遺物중 酒器와 술잔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제사에 술을 올렸고 동시에 商王室에서도 술을 즐겨 마셨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술을 지나치게 마시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 甲骨文에도 술로 인한 疾病이 나타나고 있다.

· 戊子卜, 賓貞: 畢酒在疾, 不從王古. (『合』 9560)

무자일에 짐을 치고 賓이 문습니다. 畢이 과음으로 인해 病이 났는데 대왕의 분부를 이행하지 못했을까요?

古(故)는 ‘事’를 뜻해 王古(故)는 왕의 일을 말한다.

四. 疾病의 상황

상대인들은 上帝나 조상들이 내린 재앙으로 질병에 걸린다고 믿어 병이 나면 우선 짐을 쳐 누가 재앙

11) 于省吾主編. 甲骨文字詁林. 中華書局. p. 475.
 12) 胡厚宣. 殷人疾病考. p. 429.
 13) 孟子, 告子上: 心之官則思, 荀子, 解蔽: 心者, 形之君也, 而神明之主也. 左傳, 昭公元年: 明心疾 注: 思慮煩雜, 心勞生疾

14) 溫少峰, 袁庭棟. 殷墟卜辭研究. p. 348.

을 내렸는지 묻고, 또 환자의 질병상황을 상제와 조상에게 고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치유를 간구 했다. 따라서 복사에는 질병의 유무·증세의 진진·치유 가능성 등을 묻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商代인들의 疾病에 대한 관찰과 認識 그리고 대처방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本章에서는 商代인들의 질병원인에 대해 인식과 질병상태, 患者의 분포는 어떠한지에 대해 나누어 살펴본다.

1. 發病的 원인

1) 天神 및 諸神이 재앙을 내린다고 여긴 경우 : 商代인은 上帝나 自然界의 神들이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려 病이 난다고 생각하였다.

· 唯帝肇王疾. 不唯上下肇王疾. (『合』 14222)

上帝께서 대왕에게 병이 나게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천상지하의 神靈들이 대왕에게 병이 나게 한 것은 아닐까요?.

貞 : 今日其雨疾. (『合』 12670) 오늘 上帝가 병을 내릴까요?.

商代인들은 上帝가 비를 내려 주듯 병도 내린다고 여겨 病이 난 것을 ‘雨疾’이라고 하였다.¹⁵⁾

2) 祖上神이 재앙을 내린 경우 : 上帝나 自然神이 외에 祖上神 즉 人鬼가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려 질병에 걸린다고 생각하였다.

· 貞 : 王疾身惟妣己害. (『合』 822正).

대왕께서 몸이 아픈데 己할머니가 재앙을 내렸을까요?

3) 음식물을 조심하지 않아 발병한 것으로 여긴 경우 : 별레가 있는 음식을 잘못 먹으면 病이 난다고 認識하였던 것이다.

有疾其不蠱. (『合』 13796) 病이 낫는데 별레 때문이 아닐까요?.

4) 악몽으로 病이 생긴다고 여긴 경우 : 商代에는 꿈을 불길하게 여겼고, 꿈 때문에 疾病이 난다고 믿었다. 특히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불길한 징조의 암시라 여겨 재앙으로

간주하였다.

多鬼夢, 唯疾見. (『合』 17448)

많은 鬼神들이 꿈에 보였는데 病이 생길까요?

2. 疾病의 상태

甲骨卜辭에는 질병의 유무를 묻는 “有疾”과 “亡(無)疾”이 있고, 그 외에도 질병의 상황변화와 치유상태를 나타내는 民, 延, 死, 籠, 孽, 起, 疾辭, 疾正, 克, 去등이 있어 병의 진진과 차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각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본다.

1) 有疾과 無疾, 甲骨卜辭의 문장 구조 특징 중의 하나는 점치고자하는 내용을 긍정과 부정으로 묻는 對貞이다. 따라서 疾病도 “有疾(병이 있을까요.)”, “無疾(병이 없을까요.)”로 질병의 유무를 물었다.

貞 : 其有疾. (『合』 13785) 묻습니다 : 病이 있을까요?

貞 : 子漁無疾. (『合』 13723) 묻습니다, 子漁에게 病이 없겠지요?



그림 3 13785



그림 4 13723

이러한 疾病의 유무에 대한 물음은 患者의 질병유무를 진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民 : 民은 疾病의 초기 상태를 나타낸다. 『說文』에서는 “萌, 草芽也.”라 하였는데, ‘民讀爲萌’이라 하여 萌芽의 의미로 해석하였다.¹⁶⁾

· 王疫, 民萌. (『後』 下 32.8)

대왕께서 돌림병에 걸렸는데 초기증세이겠지요?

3) 延 : 彳止 은 延의 초기 형으로 “轉移”의 뜻이

15) 胡厚宣. 殷人疾病考. 甲骨學商史論叢初集. 1972. p. 438.

16) 溫少峰, 袁庭棟編著. 殷墟卜辭研究. 1983. 四川省新華書店. p. 301.

다. 卜辭에서 延은 어떤 상태가 ‘지속된다’는 뜻이다. 가령 비에 관해서라면 비가 계속 내릴 것인지, 疾病에서라면 병세가 계속됨을 뜻해 差度에 대한 商代人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 戊申卜, 爭貞: 婦好不延有疾. (『合』 13931)

婦好가 病이 있는데 증세가 오래가지 않을까요?

4) 死: 死는 죽은 사람이 관속에 있는 모양, 또는 죽은 사람을 내려다보는 모양을 死로 해석하였다.¹⁷⁾ 商代의 사람들은 疾病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占을 쳐서 물었던 것이다.

· 貞: 婦媯子其死. (『合』 7153正)

婦媯의 아이가 죽게 될까요?

5) 寵: 甲骨文에서는 上帝나 鬼神, 조상의 보살핌으로 병이 낫는 것을 은총으로 여기고 ‘寵’자를 빌려 썼다. 寵은 곧 寵이다.¹⁸⁾ 卜辭 중에는 ‘有寵’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上帝와 諸神이 보호하여 疾病을 낫게 해달라는 商代人의 바램을 반영하는 것이다.

· 丙辰卜, 穀貞: 婦好疔, 延, 寵(寵).

婦好가 배가 아픈데 오래갈까요, 은총이 있을까요?

疔는 배가 아픔, 延은 연장되다, 寵은 신의 은총으로 풀이한다.

7) 起: 『說文』에 「起, 能立也」라고 하였다. 疾 중에서 起는 병세가 다소 호전되어 기사회생 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 辛丑卜, 貞: 疾起, 亡亦起. (『乙』 8816)

신축일에 짐을 치고 묻습니다: 병에서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할까요?

8) 辭와 正: 疾辭와 疾正은 疾病이 治療되어 호전되어 가고 있는 狀況을 말한다.

· 貞: 疫, 唯有不正. (『甲』 1640)

묻습니다. 전염병이 있는데 호전되지 않을까요?

9) 克: 克은 치료로 인해 질병을 이기고 병세가 호전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玉篇』에 「克, 勝也」라고 하였다.

· 其克寵王疾. (『合』 237) 대왕의 질병이 上帝의 은총으로 회복이 될까요?

10) 去: 去에는 ‘離也’라는 뜻이 있다. 卜辭중에서도 去는 疾病이 떠나 完治된 현상을 나타낸다.

· 貞: 疾其去. (『存』 1. 644) 병이 물러가겠지요?

五. 疾病의 치료

1. 질병의 치료자

1) 祭祀를 받는 祖上神

商代人들은 질병의 원인을 上帝나 祖上이 내린 재앙에 의한 것이라고 믿어온 만큼 그 치유도 그들에게 기원하여 해결하려고 했다. 후대에도 천재지변이나 일반적인 災難은 물론 질병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 목욕재개하고 정결하게 음식을 준비해 하늘과 鬼神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祭祀를 지냈는데 『墨子·天志』에서 그 편린을 찾아볼 수 있다.

천자에게 질병이나 불상사가 생기면 반드시 목욕재개하고 정결하게 단술과 젓밥을 마련해 하늘과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하늘은 능히 그 재앙을 물리쳐 준다.¹⁹⁾

甲骨文 卜辭 중에는 商代 사람들이 鬼神에게 祭祀를 지내므로 病을 낫고자 하는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祭祀에는 告祭, 御祭, 侑祭, 丕比祭, 衛祭 등이 있다.

商代人들은 병이 나면 대체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

17) 胡厚宣著. 甲骨學商史論叢初集 殷人疾病考. 臺灣大通書局. 1972.

18) 于省吾. 甲骨文字釋林. 釋鼎龍. p. 315.

19) 墨子·天志“天子有疾病禍祟, 必齋戒沐浴, 潔爲酒醴粢盛, 以祭祀天鬼, 則天能除去之.”

내 치유를 기원했으나 上帝에게 직접 기원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上帝의 神權은 至高無上하여 기상의 변화·농작물의 수확·征伐의 승패 등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질병에 관한 한 왕실의 영존을 바라는 웃대 조상들과 특히 정을 나누며 살았던 가까운 조상들이 더욱 정성껏 치유해 주리라 믿었기 때문이라.

2) 巫術을 행하는 巫

巫는 商代의 실질적인 의료인들이었다. 神과 人間の 교량 역할을 하는 巫는 인간의 소망을 신에게 전달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인간에게 전하는 중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存在였다. 다시 말하면 巫는 占卜을 통해 어느 神靈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어떤 祭祀와 제수품을 드려야 할지를 간파해야 하는 임무를 지녔다.

古代에 巫의 가장 실질적인 기능중의 하나는 질병의 치료였다. 이들이 巫術을 행할 때는 정신을 황홀경에 돌입해 神靈들과 교감하며 이런 경지에서 병자에게 施術이 이루어져 巫의 질병에 대한 반응과 치료의 경험은 가치 초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점차 약물과 질병의 관계를 터득하게 되고 나아가 약물로 치료하는 醫術로 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상대의 巫는 醫를 겸비하고 있다. 따라서 甲骨文에는 巫만 있을 뿐 醫자는 발견되지 않았다.²⁰⁾ 商代 中期 유적지에서 藥材 무더기가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아 藥物을 관장하는 사람이 존재했을 것인 바 巫가 이 일을 담당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卜辭에 咸戊가 있는데, 이는 咸巫 또는 巫咸이라고도 한다. 그중의 巫를 官名으로 보기도 하여 巫가 약물을 관장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

20) 醫는 医. 戔, 酉자가 합쳐진 회의자이다. 医는 상자속에 화살같은 뾰족한 醫術도구가 있는 모양이고 戔는 손에 도구를 잡고 있는 모양이다. 酉는 술항아리 모양인데 술을 뜻하며 마취, 소독, 마음을 진정시키고 약효를 빠르게 하는 효능을 의미한다. 즉 손에 의료기구를 들고 환부를 치료하는 외과 시술의 형상을 나타냈으며 음은 巫와 같게 하여 醫가 되었다.

으로 보인다.²¹⁾

3) 醫官인 小疾臣

商代는 직무에 따라 관직이 분류 되었는데 관직 중에 ‘小疾臣’이 있다. 대부분의 관리들은 노예출신에서 입신양명한 사람들이 많아 小臣이라고 하였으나 지위가 상당히 높은 小臣도 있어 大臣의 상대적인 의미는 아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商代에는 질병치료를 전담하는 의료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小疾臣은 질병을 치료하는 官吏였다고 할 수 있다.

貞：小疾臣得. 貞：小疾臣不其得. (『合』 5600. 5601正)

小疾臣이 할 수 있을까요. 小疾臣이 하지 못할까요?

……乎……小疾臣……. (『合』 5599正) 小疾臣에게……를 명할까요.

『周禮』에 「疾醫·瘍醫·食醫·獸醫」로 분류하여 업무를 분담한 것은 商代에 醫藥을 관장하던 小疾臣의 직무를 周代에서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치료대상(환자)

甲骨文은 商王을 중심으로 한 王室 대소사에 대한 실록이다. 따라서 甲骨文에 나타난 疾病卜辭 중의 患者들은 商王과 王의 婦人·王의 자녀, 그리고 商王을 보좌하여 政事를 같이 돌보았던 일부 宗室들이다.

1) 商王：질병에 관한 卜辭는 甲骨文 제1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있기 때문에 내용의 대부분은 武丁의 질병상황을 물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의 종류 또한 30 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 100여세를 향유했던 그의 삶에 많은 병력을 보였다고 하겠다. 그중 몇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丁巳卜. 爭：疾足, 御于妣庚. (『合』 775反)

다리가 아픈데 庚할머니께 御祭를 지낼까요?

21) 陳夢家. 卜辭綜述. 先公舊臣. p. 365.

· 庚戌卜, 貞: 王其疾骨. : 대왕께서 뼈골이 아플까요?

· 貞: 王疾身唯妣己害. (『合』 13666)

대왕께서 몸이 아픈데 己할머니께서 재앙을 내린 때문일까요?

위의 卜辭를 살펴 보면 貞人인 貞은 武丁 시대의 사관이고, 妣己는 武丁의 祖妣이므로 이들 王은 모두 武丁임을 알 수 있다.

2) 王妃: 商王 武丁에게는 婦好를 비롯해 수십 명의 妃들이 있었는데, 그 중 婦爵·婦井의 疾病에 대한 예를 보자.

· 貞: 婦爵育子, 亡疾. (『合』 22322)

婦爵이 아이를 낳았는데 病이 없겠지요?

· 貞: 婦井疾唯有害. (『遺』 516)

婦井이 앓고 있는데 재앙으로 이어질까요?

3) 王子: 商왕의 子제가 앓았던 疾病卜辭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婦人의 이름 뒤에 '子'를 붙이거나 子제의 이름을 직접 적고 占을 쳤다.

· 貞: 婦婭子其死. (『合』 2812) 婦婭의 아이가 혹시 죽을까요?

· 子漁有崇. (『合』 2993) 子어에게 재앙이 있을까요?

4) 王臣: 商왕의 신하인 畢이나 雀가 疾病을 앓을 때도 占을 쳐 병세의 호전상황을 물었다.

· 甲子卜, 賓貞: 畢酒在疾, 不從王故. (『甲』 2121)

畢이 과음으로 病이 났는데 대왕의 分부를 이행할 수 있을까요?

3. 질병의 치료방법

甲骨文에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를 위해 治愈를 기원하는 점복내용에서 갖가지 治愈방법을 엿볼 수 있다. 질병의 치료는 질병의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治愈방법을 적용하는 높은 수준의 治愈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1) 약물치료

『史記·三皇本紀』에 “炎帝·神農氏는 …… 百草를 씹어 맛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醫藥이 있게 되었다.”²²⁾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中國 藥物사용의 起源을 說明한 것이다. 河北 藁城의 商 初期 유적지의 한 穴에서 骨質을 벗긴 30여 개의 植物種子가 발견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복숭아씨와 산앵도 씨가 있었는데 비록 藥제로 사용했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이들은 藥材로 쓰기 위해 저장했을 가능성이 높다.²³⁾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甲骨文에 반영된 疾病의 기록은 주로 제1기에만 나타나고 있고 후기에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商代人들이 질병의 治愈에 藥의 效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藥物을 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반영하고 있다. 甲骨文卜辭를 통해 藥물치료의 실증을 조명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藥物을 이용한 治療方法은 經驗의 축적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藥草를 이용한 치료

藥草의 主류는 蓍이다. 乂字는 藥草으로 疢상에 누운 환자를 치료하는 形상으로 藥子 이다.²⁴⁾ 李孝定은 疢·疢, 胡厚宣은 麻라고 하였다. 藥子이든 疢, 또는 麻이든 藥草로 환자를 치료한다는 점에서는 일치되고 있다.

· 丁卯卜, 爭貞: 有疢寵. (『合』 13674)

쑥뜸하면 治愈될까요? 쑥뜸을 해도 治愈되지 않을까요?

(2) 물고기를 이용한 치료 (魚藥)

· 甲骨文에 물고기를 藥으로 복용한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있다.

丙戌卜, 貞: 疢, 用魚. (『庫』 1212)

병술 일에 점치고 묻습니다: 배가 아픈데 물고기를 복용할까요?

물고기는 魚살을 解치는 속성이 있어 瘀血을 뚫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까닭이다.²⁵⁾ 이

22) 史記·三皇本紀: 炎帝神農氏……始嘗百草, 始有醫藥
23) 許進雄著·洪熹譯. 中國古代社會. 東文選. 1991. p. 471.
24) 溫少峰. 殷墟卜辭研究. p. 335.
25) 傅維康著. 中藥學史. 巴蜀書社. 1993. p. 11.

를 증명이라도 하듯 위 卜辭는 복통에 물고기를 복용하여 배속의 뭉친 어혈을 물고기가 헤치면서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商代인들이 魚類를 약물로 복용했던 중요기록이라 할 수 있다. 갑골문에서 복통에 물고기를 이용했지만 산후에 가물치를 복용하고 원기회복에 잉어를 다려 먹는 건강요법의 시원을 商代를 거슬러 볼 수 있다.

(3) 대추를 이용한 치료 (棗藥)

예부터 대추는 쇠약한 內臟을 회복시키고, 貧血症, 神經衰弱, 食慾不進, 婦人冷症 등에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治療 효과를 商代의 사람들은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 甲戌卜, 貞: 有瘧, 秉棗. (『明』 105).

학질 증세가 있는데, 대추를 복용할까요?

상왕 武丁이 학질 증세가 있는데 대추로 이를 치료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²⁶⁾. 대추 이외에도 상대의 유적지에서 복숭아씨 등 약재로 사용했음직한 과일 씨를 발견하여 대추 사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²⁷⁾. (圖2)

2) 침 치료

『周易·渙卦』에는 “渙出血, 去瘀出, 無咎(피가 흘러 흩어지니 먼 곳으로 나가도 재앙이 없으리라.)” 라고 하였고, 『易林』에 “針頭刺手, 百病廖愈”(침을 손에 찌르니 오만병이 다 치유된다)고 하는 말들을 보면 針으로 자극하여 治療하는 醫術은 이미 商代에도 시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武丁시대 甲骨文에서 針을 이용하여 疾病을 치료하던 對貞된 卜辭가 있는 것에서 확증을 얻을 수 있다.

· ……其殷. ……殷. (『습』 17979) 침으로 치료할까요?

甲骨文 疒 자는 사람의 복부에 병이 있어 누군가가 손에 뾰족한 침(↑)을 들고 환부를 찌르는 모양이다. 于省吾는 복부에 병이 있어 안마기로 문질러 치유하는 모양이라고 하였다.²⁸⁾ 침으로 환부를 찌를 때

적중해야 하기 때문에 殷은 「正也·中也」, 「痛也」라는 의미가 있다.²⁹⁾ 침으로 환부를 치유할 때 검붉은 피가 나오므로 「검붉은 색」이라는 뜻도 있다.³⁰⁾ 침은 신석기 시대 石針에서 금속이 발견된 뒤에는 금속으로 대체했다. 문헌에 기록된 침에 대한 기술을 보면 돌로 침을 만들어 써서 砭石이라 하였고, 짐차 뼈이나 竹 또는 金屬으로 대체되었는데 문헌상의 箴石, 鍼石은 모두 砭石의 별칭으로 시대에 따른 돌침의 제질의 변화상을 나타내고 있다. 山西村 商代의 묘에서는 漆盒에 날카로운 대패 모양의 砭鏃(돌침)이 발견되었는데, 漆盒은 商代에서는 상당히 진기한 器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침을 담았던 것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돌침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를 알 수 있다. 돌침은 곱은 부위를 절개하거나 피부의 按摩, 그리고 피부를 뜨겁게 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가지 골기도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 骨針으로 보이는 遺物들도 있다.³¹⁾(그림 5)



그림 5 山西村 商墓 중의 商代의 砭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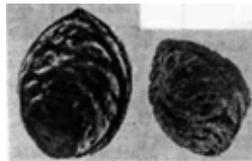


그림 6 약용 복숭아씨

28) 于省吾. 甲骨文字釋林. 1979. 釋殷. p. 321.

29) 爾雅釋言 殷, 正也, 中也 廣雅釋詁 殷, 痛也.

30) 廣韻「殷, 赤黑色也」. 左傳〈成公二年〉: 左輪朱殷 杜注: 血色久則殷, 殷音 近烟, 今人以赤黑爲殷色

31) 馬繼興. 山西村商墓中出土的醫療器具砭鏃. 文物. 1979. 第6期. p. 54.

許進雄. 中國古代社會 商務印書館. 1995. p. 520.

26) 溫少峰. 殷墟卜辭研究. p. 336.

27) 許進雄著, 洪熹譯. 中國古代社會. 東文選. 1991. p. 520.

商代는 이미 노예제 사회로 접어들어 靑銅 藝術이 매우 발달된 점은 공인된 사실이고, 鍼의 사용 또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商代에 靑銅 鍼이 있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甲骨文文字 殷은 이를 대변 하는데 앓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손에 銅鍼을 들고 찔러 병을 치유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로 볼 때 殷의 本義는 ‘침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殷자의 繁体字로 𠄎이 있다. 于省吾는 「집안에서 환자가 침상에 누워있고 불에 달구어진 화살촉 같은 도구로 복부를 안마하는 모양」이라고 하였는데 화살촉 같은 침 아래 火자가 있어 불에 달구어 사용했으리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³²⁾

3) 灸(艾)치료

뜸은 漢方 치료의 하나로서 鍼 시술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武丁시대의 甲骨文중 이를 뒷받침하는 文字가 있어 灸법이 商代에 질병 치료의 일종으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詩經·王風·采葛』의 「彼采艾兮 저기 가서 灸을 캔다고 하며……」의 注에 艾를 약쑤이라 하였는데 『毛傳』에서는 「艾, 所以療病」이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周代에 이미 灸으로 질병을 치료했던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 巫妹艾子 (『拾』 11.10) 巫醫 妹가 아이에게 灸뜸치료를 할까요?

有艾(艾), 今夕.(『京』 2458) 灸뜸치료를 할까요? 오늘저녁에..

· ……取艾每 (『甲』 2287) 艾每를 부를까요?

艾는 艾와 고음이 같고 뜻도 통하여 『史記·楚世家』에 “熊艾”라고 한 것을 『三代世表』에서는 ‘熊艾’라 하였다. 최초의 뜸 치료에는 각종 풀들이 이용되었으나 점차 灸의 약효를 인식하고는 灸으로 뜸을 때 치유함으로 灸법이 질병치유의 중요 수단으로 전해져 7년 된 병을 3년 묵힌 灸으로 치유했던 것이다.³³⁾ 巫妹는 妹로 불리우는 병을 치유하는 巫이고,

艾每 역시 질병을 치료하는 여인이다. 이로 볼 때 당시에 질병의 치료는 巫가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商代의 질병치료에 灸이 유용하게 쓰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甲骨文에서는 병상에 누워있고 환자에게 약초로 뜸을 때 치료하는 형상이 그대로 묘사된 文字도 볼 수 있다.

· 丁卯卜, 爭貞 : 𠄎龍. 貞 : 𠄎龍, 不其龍.(『合』 13674)

丁卯일에 점치고 貞이 묻습니다.

쑤뜸을 하면 치유될까요? 쑤뜸을 해도 치유되지 않을까요?³⁴⁾



그림 7 13674



그림 8 乙 276

이상으로 볼 때 商代인들은 약쑤으로 뜸을 하여 질병을 치유하는 요법을 시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4) 안마 치료

甲骨文에는 손으로 환부를 문질러 치료하는 按摩 요법을 보여주는 𠄎가 있어 주목을 끈다.

· 丙辰卜, 貞 : 婦好𠄎止 龍.(『合』 13712正)

여기서 𠄎字는 환자가 침상에 누워있고, 손으로 배를 쓸고 있는 모양으로 李孝定은 疢疢로 풀이하였다.³⁵⁾ 『說文』에서는 疢를 「心腹痛」이라고 하였

氏春秋·屬類 巫醫毒藥, 逐除治之

34) 胡厚宣. 論殷人治療病之方法. 中國語文研究. p. 12.

35) 李孝定. 甲骨文集釋. 1965. p. 2527.

32) 于省吾. 甲骨文釋林. 釋殷. p. 322.

33) 孟子·離婁上·今以欲王者, 猶七年之病, 求三年之艾也. 呂

는데 甲骨文에서는 명사로 쓰일 때는 “복통”, 동사로 “치유하다”로 쓰였다. 또 자가 있는데 역시 손으로 배를 문지르는 모양으로 付이며, 拊의 初文이다.

· 甲申卜, 爭貞: 尹氏(氏) 拊子. 貞: 尹弗其氏(氏) 拊子. (『前』 7,43,1) 윤은 자에게 복부 안마를 치유할까요, 윤은 자에게 복부안마를 치유하지 말까요?

氏는 氏로 읽으며 ‘가져오다’, ‘데려오다’는 뜻이 있고, 拊는 안마, 尹은 인명 또는 관명 즉 醫官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尹은 子에게 복부안마를 할 것인지 해서는 안 되는지를 묻고 있어 당시 환자에게 어떤 요법을 쓰고 누가 시술을 할 것인지도 짐쳐 물었다고 할 수 있다. 안마시술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담당하였다.

· 丁酉卜, 爭貞: 呼 妣 疔 克. (『合』 4464正)

妣 疔에게 안마를 하게 하면 효험이 있을까요?

여기서 妣 疔은 안마로 시술하는 사람인바 여성 인고로 당시 안마시술은 여성 巫醫도 활약을 했었다고 추정되며, 克은 “효험이 있다”라는 의미이다. 즉 巫醫를 불러 안마시술을 하게 하면 효험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다. 안마는 복통뿐만 아니라 뼈가 쑤시는 데도 활용되었음을 아래 卜辭에서 알 수 있다.

· 疔骨. (『乙』 4714) 뼈골이 아픈데 안마시술을 해볼까요?

의학발전사의 관점에서 볼 때 아픈 부위를 문지르는 按摩요법은 인류의 원초적인 의료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의학서인 『黃帝內經』 「素向舉痛論篇」: 「按之則氣血散, 故按之痛止」(환부를 문지르면 기혈이 퍼지게 된다. 그런고로 문지르면 통증이 그친다.)고 하며, 按摩의 생성과 그 원리뿐만 아니라 치유되는 질병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史記, 扁鵲列傳』에 출현하는 상고시대 俞跗라는 의사는 약물보다 針과 按摩로 시술하였는데 특히 전신을 문질러 혈을 순화시키는 按摩로 치료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³⁶⁾ 扁鵲 시대에 上古시대의 의사 俞跗라고

하면 商周 시대로 거슬러 볼 수 있는바 그는 중국 최초의 按摩시술사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 이름 跗자속에 붙은 「付」의 음은 위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몸을 문지르다’는 「付, 拊」와 모종의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가능케 하고 있다.

5) 拔齒 치료

얇은 이를 빼 버리라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甲骨文에 보면 商王의 치통을 拔齒로 해결했다.

· 甲子卜, 殼貞: 王疾齒, 唯易. (『合』 10349)

대왕께서 이가 아픈데 이를 뽑을까요?

· 甲子卜, 殼貞: 王疾齒, 亡易. (『合』 133643)

대왕께서 이가 아픈데 이를 뽑지 말까요?

위 두 卜辭는 商王 武丁이 잇병이 났는데 뽑아 버릴지 뽑지 말 것인지를 묻고 있다. 齒는 입속에 이가 삐죽삐죽 나 있는 모양이다. 易은 ‘更易’의 뜻이 있어 ‘이를 갈다’는 뜻이겠으나 성인의 이가 새로 나기는 어려운 바 ‘이를 뽑다’는 뜻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뽑는 방법에 관한 卜辭도 있다.

貞: 其出 齒, 若. (『通』 IV 7)

실로 이를 동여매 뽑으려는데 순조로울까요?

齒은 ‘執’자로 繫으로 읽고 ‘絆也’·‘系也’로 풀이하며 ‘繫齒’는 실로 이뿌리를 동여매 뽑아내는 방법이다³⁷⁾. 또한, 아래 卜辭를 보면 이를 뽑는 일에 신의 가호가 있을 것인지를 물었다.

· 貞: 祈氏之病齒, 鼎寵. 病齒, 寵. (『合』 6482正)

‘氏之病齒’는 아픈이를 보내 버리다 즉, 뽑아내다. 는 의미이고 ‘鼎寵’은 ‘목전에 신의 보호를 받아³⁸⁾’라는 의미로 전체의 뜻은 아픈이를 뽑으면 당장 신의 가호가 있겠는가로 풀이 된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卜辭를 통해 볼 때, 商代에는 심한 치통이 있을 때 이를 뽑아 치료했고, 이를 뽑을 때는 실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뽑고, 다른 후유증이 없이 순조로울 것인지를 짐쳐 물었음을 알 수 있다.

36) 史記, 扁鵲列傳: 上古之時, 醫有俞跗, 治病不以湯液醴灑, (而用)

鑿石, 矯行, 案杭, 毒熨. 素隱: 鑿謂石針也. 矯謂按摩之法, 夭矯引身, 如熊顧鳥伸也. 杭亦謂按摩而玩弄身體使調也. 毒熨

謂毒病之處, 次藥物熨帖也.

37) 溫少峰. 殷墟卜辭研究.

38) 于省吾. 甲骨文釋林. 釋鼎寵. p. 217.

6) 接骨 치료

古代 생활에서 전쟁이나 작업 중의 負傷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없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때 뼈를 맞추고 붙이는 醫術이 행해졌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甲骨文에서 찾아볼 수 있다.

· 王 𠄎 唯有害。(『合』211) 대왕이 팔을 다쳤는데, 재앙이 있을까요?

呼 𠄎。(『乙』2844) 팔을 바르게 퍼도록 할까요.

甲骨文의 𠄎字는 九字로 손과 팔의 관절부위를 상형한 ‘肘’의 초문이다. 『說文』에서 “肘, 臂節也(肘는 팔의 關節이다).”라 하였는데, 바로 팔꿈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𠄎’는 ‘糾’로 발음하며 ‘바르게 한다’는 뜻을 가진다. 『周禮·夏官·大司馬』注에는 ‘合也’라고 하였다. 이들을 근거로 하면 ‘糾肘’라는 뜻은 뼈를 바르게 하여 관절을 맞추고 동여매 고정시킴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전통 접골법으로서 商代에 이미 동일한 방법이 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六. 結 論

이상에서 甲骨卜辭에 나타난 商代의 疾病과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 商代의 질병관·질병의 종류, 질병의 상황·질병의 치료 등을 살펴보았다. 몇 가지 특징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疾病에 대한 갑골문의 卜辭는 갑골문 제1기에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疾病의 治療를 어느 정도 인식하게된 商代人들은 질병과 점복이 무관함을 간파한 결과였다고 하겠다.

둘째, 商代人들은 疾病의 요인을 명확히 인식하여 내적인 요소로 일어난 病을 𠄎字로 외적인 사고로 생긴 病을 𠄎字로 상형화 하였는데 疾자는 이들 두자의 핵심이 결합된 것이다.

셋째, 卜辭에는 疾首, 疾身, 疾目, 疾耳, 疾舌, 疾言, 疾齒, 疾自, 尿疾, 疾, 骨 등 모두 30여 가지의 疾病이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疾病들은 現代 醫學에서 다루고 있는 重要 疾病의 種類에 거의 상응하는 것이다.

넷째, 商代人들은 발병의 主원인은 상제나 조상들이 재앙을 내린 것이라고 인식했고 그 외 음식물이나 약물 등의 結果로 여겼다. 병이 나면 증세의 진전과 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有疾, 亡疾, 民, 延, 死, 寵, 克, 去 등과 같이 악화되는 정도, 치유되는 현상을 포착해 그 증세에 따라 조상에게 치유를 기원했다.

다섯째, 질병 복사의 主要 대상은 ‘余一人’이라고 하는 지존인 商王이다. 그의 王妃, 王子,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가 극소수로 나타났다.

여섯째, 商代의 질병치료자는 조상신, 巫, 小疾臣 3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상신들은 질병의 원 인제공자인 동시에 간접적인 질병치료자들이고, 巫術을 행하는 巫, 小疾臣은 의관이 있다. 이들은 바로 당시의 의사들이다.

일곱째, 질병의 치료 방법은 藥物·鍼·灸·砭·按摩·拔齒·接骨 등 각 병과의 증세에 따라 갖가지 처방이 적용되었다. 이같은 치료 방법은 현대 한의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重要 치유법들이다.

이상과 같이 甲骨文에 나타난 질병 복사를 통해 商代의 疾病의 종류와 치유방법을 분석해 볼 때 商代는 이미 수준 높은 질병의 대처 능력이 있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전국시대의 醫術을 기초로 漢代에 편집된 『神農本草經』·『黃帝內經』과 같은 醫學 명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초석이었던 바, 中國의 中醫學의 始源을 商代로 거슬러 올리는 확실한 근거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논문>

1. 梁東淑. 韓國五種字典의 字源分析과 甲骨文, 說文과의 比較연구 I, II, III. 中國語文學論集.

2006. 10. 제37호, 제39호, 제40호.
2. 梁東淑. 甲骨文으로 본 商代 疾病. 中語中文學. 1999. 제24집.
3. 梁東淑. 甲骨文에 나타난 疾病의 重要卜辭考釋. 中語中文學. 1996. 제19집.

<단행본>

1. 梁東淑. 甲骨文字學. 차이나하우스. 2006.
2. 梁東淑. 甲骨文解讀. 書藝文人畫. 2005.
3. 許進雄. 中國古代社會. 商務印書館. 1995.
4. 裘錫圭. 古文字論集. 中華書局. 1992.
5. 古敬恒 劉利共著. 新編說文. 南京. 中國礦業大學出版社. 1991.
6. 許進雄著·洪熹譯. 中國古代社會. 서울. 東文選. 1991.
7. 王宇信. 甲骨學一百年. 社會科學院文獻出版社. 1990.
8. 趙誠編著. 甲骨文簡明詞典.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1988.
9. 陳煒謨. 甲骨文簡論. 上海古籍出版社. 1987.
10. 溫少峰, 袁庭棟 編著. 殷墟卜辭研究. 四川. 四川省新華書店. 1983.
11. 張麗生著. 急就篇研究.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12. 于省吾. 甲骨文釋林. 大通書局. 1981.
13. 貝塚茂樹, 伊藤道治共著. 甲骨文字研究. 東京. 同朋舍. 1980.
14. 馬繼興. 台西村商墓中出土的醫療器具砭鏃. 北京. 文物. 1979.
15. 段玉裁. 說文解字注. 臺北. 蘭臺書局. 1977.
16. 鍾益研凌襄. 我國現的最古醫方-帛書 五十二病方. 文物. 1975.
17. 胡厚宣著. 甲骨學商史論叢初集·殷人疾病考. 臺灣大通書局. 1972.
論殷人治療疾病之方法. 中國語文研究.
18. 劉敦愿. 漢畫象石上的針灸圖. 北京. 文物. 1972. 第6期.
19. 虞愚. 商代的骨器製造. 北京. 文物. 1958. 第

10期.

20. 陳夢家. 殷虛卜辭綜述. 科學出版社. 1956.
21. 胡厚宣. 甲骨學商史論叢. 臺灣大通書局. 1945.
22. 高鳴謙一. 婦好の疾病に關する一卜辭の試釋. 甲骨學. 第12號.